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은?



한 장 혁

코미팜 본부장  
수의사 / 본지 편집위원

작년 10월 10일에 국내 첫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미국 역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많은 보도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다. 이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HPAI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거의 매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에 각국의 대책을 보면 우리의 향후 대책에 도움일 될 것이다.

### 1. 미국의 대책

미국에서 지난해초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50개주 가운데 47개주로 번지고 있다. 5,800만마리 넘는 조류가 살처분됐으며 밍크·여우·너구리·곰 같은 포유류로의 전파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봄철 철새이동까지 감안하면 고병원성 AI

美 닭친 조류인플루엔자...백약관, 백신접종 검토까지

입력: 2023-03-08 16:17 | 수정: 2023-03-08 16:17



확산세는 지금보다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감염병 여파로 미국에서 지난해 달걀가격은 전년보다 70% 이상 폭등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달걀가격은 1월 기준 한 다스(12개)당 4.82달러(6,300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3달러(2,500원)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고병원성 AI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역 보건당국과 협력해 감염된 조류와 접촉한 미국 가금류 근로자 6,300여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63명이 관련 증상을 보였으며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병원성 AI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지만 그 사례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전 세계에

서 인간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례는 9건이었다. 최근 캄보디아에선 11세 소녀가 고병원성 AI에 걸려 사망했으며 소녀의 아버지도 감염이 확인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사례에서 사람 간 전파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감염을 일으킨다는 증거하에 백신 도입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2. 유럽의 백신

### 프랑스, 올가을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작

등록 2023.05.26 19:23:50

오리 대상 시험 결과 만족스러운 효과 입증  
8000만개 백신 선주문...지난 18개월새 전세계 2억마리 이상 살처분

여러 심각한 변종들을 낳고 있는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 18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2억 마리가 넘는 가금류들의 살처분을 초래하는 등 가금류 산업을 황폐화시켰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사람 사이의 전염을 피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점점 더 고려하고 있다. 농업부는 이날 최근 프랑스 보건 안전청(ANSES)의 최종 시험 결과 백신 접종이 AI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지난달 8,000만개의 백신을 선주문했으며, 올 가을부터 백신 접종을 시

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새오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의 효과를 시험한 결과 백신을 접종받은 노새오리는 바이러스 전파를 더 잘 제어했고, AI에 감염된 오리과 백신을 접종받은 오리가 구별이 뚜렷했으며, 백신 접종 오리에서는 바이러스 배설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에서는 산란용 암탉을, 이탈리아에서는 칠면조를 대상으로 AI 백신 접종을 실험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의 초기 결과는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우리나라의 백신 정책

우리나라는 6년 전부터 바로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전단계인 항원뱅크를 유지하고 있다. 항원의 양은 약 2,000만수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돌발 상황이 되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 생각된다. 다만, 백신 사용에 있어 사육농가, 축산업계, 학계, 정부등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시기와 접종 축종을 선별하지 못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항원뱅크를 유지하며, 예상 시나리오 구축 및 도상연습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접종을 하여 방어력이 생겨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밀한 정책채택이 절실하다.

### 4. 사족



8월 초에 여러 매체에 발표된 기사이다. 서울에서 고양이가 조류인플루엔자(H5N1)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늦은 감은 있으나, 서울의 고양이한테 발생하였다는 점이 나를 더 당혹시켰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당연히 감염될 수 있지만, 대개는 농장 또는 인근에 사육되는 개, 고양이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 왜? 서울이란 말인가? 역학이 도무지 안 맞는다.

이러한 사례들이 시사하는 것은 조류→사람 → 반려동물이나, 조류→ 반려동물 → 사람으로 오는 순환고리가 완성될 수 있다. 중간 장벽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과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이 완성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축산업의 항상성 있는 발전과 인류의 건강을 도모해야만, 우리의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것이다. **양계**